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연'... 속 타는 전남도

농협중앙회 등 50곳 유치 목표
尹정부 국정과제 불구 '제자리' 도, 지원센터·단계별 전략 수립
이달 공공기관 민간유치위 출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 역시 정부의 이전 사업 지연으로 대응 전략에 혼선을 빚고 있지만, 올해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만큼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도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된 사

주요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

광주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기관
전남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향은 전남도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산업 등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지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정부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하고, 같은 해 12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360개 공공기관에 한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

에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고 판단,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일찍이 2차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전남을 농수산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국회에 농·수협법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현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전남연구원 '수도권공공기

관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나섰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전국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 지역발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전남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도 높아졌다.

전남도는 이달 중 유치 목표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민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단체 릴레이 결의, 언론 기고 등 전방위적 홍보, 광주시와 공동정책 토론회 개최 및 공동 유치 성명서 발표, 대정부 건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시민의 공감대 확산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올해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힘·정부·대통령실 당정협의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한자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 기자**



효천생활문화축제-굴다리 아트마켓

'효천생활문화축제-굴다리 아트마켓'이 지난 24일 광주 남구 효천역 선로 아래 굴다리에서 열려 시민들이 풍선아트 공연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

